

중국의 대북 경제적 영향력 분석

이 영 훈 / 한국은행 금융경제연구원 연구위원

본 연구는 최근 북중경협 현황을 정리하고 북중경협 확대의 영향을 분석하였다. 첫째, 북중경협의 현황 정리를 통해 북중무역의 남북교역 대체 가능성, 중국의 대북투자 실현 가능성 등에 대한 논란을 검토하였다. 둘째, 북중경협의 영향을 상품의 생산과 소비, 화폐유통, 주민의식 등의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북한의 대중국 종속 가능성을 분석하였다.

북중경협은 2009년 11월 30일 화폐개혁, 2010년 5월 24일 남북교역 중단 조치 등의 영향으로 위축될 것이라는 당초 예상과는 달리 확대되고 다변화되었다. 우선, 2010년 중 북중무역은 34억 7천만 달러로 전년동기(26억 8천만 달러)대비 29.3% 증가했다. 특히 북한의 대중국 수출은 11억 9천만 달러로 전년동기(7억 9천만 달러)대비 49.9% 증가했다. 또한 중국의 대북투자도 동북3성개발의 연장으로 본격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북한의 열악한 투자환경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투자가 본격화되는 것은 양국간 이해가 일치하고 특히 중국이 북한을 통한 해양 또는 남한으로의 진출을 염두에 두고 있기 때문이다. 그 외 북한의 저임금을 겨냥한 임가공무역이나 대북관광도 확대되고 있다.

이러한 최근 북중경협의 확대와 다변화는 북중경협이 남북경협을 대체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우선, 2010년 대중국 수출은 전년대비 50%(약 4억 달러) 증가함으로써 남북교역 중단으로 인한 외화소득 감소분을 만회하고 있다. 일반교역뿐 아니라 임가공무역도 대체되고 개성공단의 입지도 동북3성 개발과 연계된 인프라 및 경제특구 건설로 약화될 가능성이 있다.

또한 최근 북중경협의 추세는 대중국 종속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그간 북중경협이 확대되었지만 북한은 무역 경쟁력을 개선하지 못함으로써 기초 생필품조차 수입대체를 하지 못하고 있다. 향후 북한정부의 적극적 개혁 노력 없이는 북중경협의 확대는 대중국 종속 심화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

이상 최근의 북중경협 확대 및 영향을 고려할 때, 지금의 추세가 지속된다면 남한의 영향력이 감소하고 중국의 영향력이 확대되는 것은 불가피하다. 따라서 남북관계에 초점을 둔 우리의 대북정책과 비상계획은 중국변수를 추가하여 개선될 필요가 있다.

머리말

최근 중국은 북한의 유일한 생명선으로 부상하면서 북한의 대중국 종속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강화되고는 있지만 북중경협은 더욱 확대되고 있다. 2010년 12월 중국은 사상 최대 규모인 20억 달러를 나선특구에 투자하여 도로, 발전소를 지어주고 광물 채굴권을 가져가기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한 2010년 12월 31일 신압록강대교 착공식이 열리고 이로 인해 압록강 위화도, 황금평 가공무역지구 개발에도 탄력을 받게 될 것으로 예견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북중경협 현황을 정리하고 북중경협 확대의 영향을 대중국 종속 가능성 여부에 초점을 두고 분석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첫째, 북중경협의 현황 정리를 통해 다음과 같은 최근의 논란을 검토하게 될 것이다: 무역부문에서는 북중무역이 남북경협을 대체할 수 있다는 주장과 대체하기 어렵다는 주장, 그리고 대북투자에서는 실제 성과를 거두고 있다는 주장과 합의서 수준에 불과하다는 입장 등을 살피고자 한다.

둘째, 북중경협의 영향을 상품의 생산과 소비, 화폐유통, 주민의식 등의 변화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북한의 대중국 종속 가능성을 분석하고자 한다. 경협의 확대로 경제 의존도는 심화되지만 종속이 심화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의존도 심화와 종속 심화를 구분하여 접근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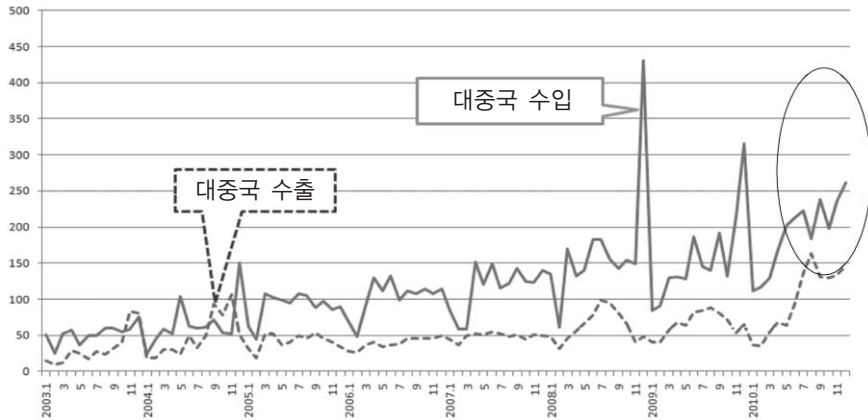
북중경제협력 현황

북중무역

2010년 중 북중무역은 34억 7천만 달러로 전년동기(26억 8천만 달러)대비 29.3% 증가했다. 북한의 대중국 수출은 11억 9천만 달러로 전년동기(7억 9천만 달러)대비 49.9% 증가했고, 특히 하반기에 크게 증가했다. 수입은 22억 8천만 달

〈 북한의 월별 대중국 수출·수입(2003년 1월~2010년 12월) 〉

(단위 : 백만 달러)



리로 전년동기(18억 9천만 달러)대비 20.7% 증가했다.

이러한 북중무역 증가는 2009년 6월 2차 핵실험에 따른 대북제재 강화, 2009년 11월 30일 화폐개혁, 2010년 5월 24일 남북교역 중단 조치 등의 영향으로 북중무역이 감소할 것이란 전망과 배치된다.

2010년 북한의 대중국 수출은 특히 광물성 원료(대부분 무연탄), 의류, 어류 등

〈 북한의 대중국 주요 품목별 수출 현황 〉

(단위 : 백만 달러, %)

순위 ¹⁾	품목명	2007	2008	2009	2010
1	광,슬랙,회(HS26)	164(38.5)	213(29.7)	72(n.a. ²⁾)	251(17.8 ³⁾)
2	광물성 연료(HS27)	170(66.1)	208(22.1)	212(n.a.)	397(90.9)
3	철강(HS72)	45(28.2)	78(73.6)	43(n.a.)	109(39.7)
4	의류(HS62)	60(-4.7)	77(28.0)	56(n.a.)	161(109.1)
5	어류(HS03)	30(-30.8)	40(33.6)	22(n.a.)	60(50.0)
	기 타	113	138	388	210
	총계	582(24.6)	754(29.6)	793(5.2)	1,188(49.9)

주 : 1) 우선순위는 2008년을 기준으로 함

: 2) ()내는 전년 동기대비 증가율인데, 2009.8-11월까지 '품목별' 통계를 발표하지 않았음

: 3) 2010년의 경우 2009년 통계 문제 때문에 2008년 대비 증가율을 계산

출처 : 한국무역협회 <www.kita.net>

< 북한의 대중국 주요 품목별 수입 현황 >

(단위 : 백만 달러, %)

순위 ¹⁾	품목별	2007	2008	2009	2010
1	광물성 연료(HS27)	402(15.7)	586(45.8)	223(n.a. ²⁾)	479(-18.3 ³⁾)
2	보일러와 기계류(HS84)	104(25.0)	145(40.1)	99(n.a.)	245(69.0)
3	전기기기, 장비(HS85)	69(-29.0)	101(45.3)	71(n.a.)	191(89.1)
4	플라스틱류(HS39)	54(92.1)	67(25.4)	44(n.a.)	84(25.4)
5	차량 및 부속품(HS87)	52(35.4)	89(46.6)	69(n.a.)	160(79.8)
	기 타	711	1,045	1,382	1,119
	총계	1,392(13.1)	2,033(46.0)	1,888(-7.1)	2,278(20.7)

주 : 1) 우선순위는 2008년을 기준으로 함

: 2) () 내는 전년 동기대비 증가율인데, 2009.8-11월까지 '품목별' 통계를 발표하지 않았음

: 3) 2010년의 경우 2009년 통계 문제 때문에 2008년 대비 증가율을 계산

출처 : 한국무역협회 (www.kita.net)

이 크게 증가했다. 이들 품목의 수출규모 증가율은 대체로 단가 상승폭보다 커 수출물량이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¹⁾

이들 광물성 원료(대부분 무연탄), 의류, 어류 등은 북한의 대표적인 대남 수출 품목이기도 하다. 어류와 광물성 원료는 일반교역의, 의류는 임가공무역 및 개성공단 사업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품목이다.²⁾

한편 2010년 북한의 대중국 주요 수입품목은 광물성 연료(주로 원유)를 제외하면 전반적으로 증가했다. 그러나 광물성연료(원유)의 수입감소는 단가 하락에 기인할 뿐 물량은 큰 변화가 없다.³⁾ 다른 품목들의 경우에는 단가 상승 이상으로 수입규모가 증가하여 수입물량이 증가하고 있다.

1) 2010년 금액기준 우선순위별로 주요 수출품목의 단가를 2008, 2009년과 비교해 보면, 전반적으로 2008년에 비해 증가하지 않았다: 무연탄(HS 270111) 2008년 0.08 ⇒ 2009년 0.07 ⇒ 2010년 0.08, 철광(HS 260111) 0.09 ⇒ 0.05 ⇒ 0.09, 선철(HS 720110) 0.48 ⇒ 0.27 ⇒ 0.36, 오징어(HS 030749) 1.55 ⇒ 1.63 ⇒ 1.07, 의류(HS 620333) 6.65 ⇒ 5.70 ⇒ 7.01 등

2) 2009년 남북교역에서 어류와 광물성원료는 일반교역의 1, 2위의 비중을 차지하고 섬유는 임가공무역과 개성공단사업의 1위의 비중을 차지하는 품목이다. 구체적으로 어류와 광물성 원료는 각각 1억 5천만 달러, 4천만 달러로 일반교역의 57%, 15%를 차지하였고, 섬유는 4억2천만 달러로 임가공 무역의 83%(2억1천만 달러), 개성공단사업 47%(2억달러)를 차지하였다.

3) 2010년 금액기준 우선순위별로 주요 수입품목의 단가를 2008, 2009년과 비교해 보면, 원유와 휴대폰 등의 단가는 하락, 곡물과 차량 등은 상승했다: 원유(HS 270900) 2008년 0.78 ⇒ 2009년 0.43 ⇒ 2010년 0.62, 차량(HS 870423) 28,888 ⇒ 32,693 ⇒ 33,263, 밀가루(HS 110100) 0.27 ⇒ 0.32 ⇒ 0.35, 쌀(HS 100630) 0.33 ⇒ 0.38 ⇒ 0.42, 휴대폰(HS 851712) 100 ⇒ 87 ⇒ 81 등

이상 2010년 대중국 수출이 ① 하반기 들어 크게 증가하기 시작하여 전년대비 50%(4억 달러) 증가한 점, ② 품목별로는 대남한 주요 수출품목인 의류, 어류와 광물성 원료(무연탄)가 크게 증가한 점 등을 고려할 때, 북중무역이 남북교역을 대체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⁴⁾

중국의 대북투자

인프라

최근 중국 정부의 대북투자는 동북3성 개발 추진의 일환으로 대북통로 건설(인프라 구축)에 집중되고 있다. 중국은 동북진흥계획에 따라 랴오닝성 연해경제벨트와 지린성 창지투(장춘-길림-도문) 선도구 개발을 추진하고 同 개발계획에 따라 북한지역 서쪽의 신의주, 동쪽의 나진 및 청진으로 진출을 시도하고 있다.

랴오닝성 연해경제벨트 개발의 일환으로 단동-신의주를 연결하는 신압록강대교 건설이 착공(10.12.31)됐으며, 신의주-평양간 고속도로 건설도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중국이 공사비 17억 위안을 전부 감당할 만큼 신압록강대교 건

< 중국의 대북한통로 건설 투자 동향 >

구 분	투자자	주요 내용
SOC	나진항	길림성 - 2009.10월 나진항 1호부두 보수·창고건설 합의 * 창리그룹(훈춘)
	나진-원정도로	길림성 - 2010.3월 도로 48km 개보수 합의
	국경교량(6개)	길림성 - 2009.12월 국경교량 보수공사 합의 * 원정(3.15 착공, 6.1 완공), 새별, 남양, 삼봉, 회령, 무산
	신압록강대교	교통운수부·상무부 - 2009.10월 「원자바오」 총리 방북시 합의 - 2010.12.31 착공
전력	문약발전소	길림성 - 2009.10월 건설(4萬kW) 합의, 2010.3.31 착공

4) 필자가 인터뷰(2010.11월)한 중국의 대북 무역업자에 따르면, 북한은 과거 고열량의 무연탄은 남한으로, 저열량의 무연탄은 중국으로 수출했으나 5.24조치 이후에는 남한으로 수출하던 고열량의 무연탄도 중국으로 수출하고 있다고 하였다.

설에 적극적인 이유는 대북통로 확보, 단둥 일대의 압록강변 개발 프로젝트 추진 등에 있다. 우선, 중국은 단둥시를 대북 통로 더 나아가 한반도 개방사업의 전초기지로 활용할 계획이다.⁵⁾ 자오렌성(趙連生) 단둥(丹東) 시장은 신 압록강대교 건설을 통해, 북중무역에서의 단둥의 절대적 지위를 강화하고 단둥시 개방을 가속화하여, 제 2의 선전(深圳)이 되겠다는 포부를 밝힘. 이로써, 단둥시가 ▲대북무역통로, ▲북중무역 가공기지, ▲북한관광 창구, ▲중국의 한반도개방사업 전초기지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文熙報, 2010.3.10)

둘째, 압록강변 개발 프로젝트는 압록강 하구에 97km² 규모의 첨단 산업단지를 조성한다는 것이 핵심이며, 리커창 부총리가 요녕성 서기로 재직하고 있던 2005년부터 탄력을 받기 시작했다. 장기적으로는 북한이 계획을 세웠다가 추진을 보류한 신의주특구개발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구상은 궁극적으로 북한의 신의주 개발을 유도, 단둥의 압록강 유역과 신의주를 묶는 광역 경제블럭을 형성하겠다는 것이며 황금평과 위화도 개발도 이러한 계획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다.

〈 창지투개발계획 상의 8개 대북통로 프로젝트 〉

프로젝트명	총투자금액	건설기한
팔도(八道)-삼함(三含)-청진 고속도로(47km)	28억 위안	2015년
훈춘-권하(圈河)-라진 고속도로(39km)	23억 위안	2015년
화룡(和龍)-남평(南平)-청진 고속도로(50km)	30억 위안	2015년
도문(圖們)-남양-두만강-하산 철도 합작개조(126km)	24.3억 위안	2020년
화룡-남평-무산 철도(53.5km)	16억 위안	2015년
도문-나진 철도 합작개조(158.8km)	12.7억 위안	2020년
개산툰(開山屯)-삼봉 철도통상구 건설(2.5km 철교 복구건설)	1.5억 위안	2020년
권하, 도문, 사타자, 개산툰, 삼함, 남평 통상구 교량 건설(2,152km)	5억 위안	-
프로젝트 총 투자액 합계	160.5억 위안 (23.7억 달러)	

자료 : 윤승현(2010)

5) 우리 사회 일각에서는 중국이 훈춘·도문-라진 개발을 단둥-신의주 개발보다 중시하고 있다고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중국이 단둥을 한반도 개방사업의 전초기지로써 개발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단둥-신의주연계 개발이 과소평가되는 곤란하다.

한편 창지투 개발계획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대북통로 8개 건설 프로젝트 중에서 삼합(三合)-청진 간 도속도로, 개산둔(開山屯)-삼봉리 간 철도 통상구 등 일부 구간 공사가 시작되었다.

훈춘-다렌항은 거리가 1,300km이지만, 훈춘-나진항은 93km에 불과하여 중국의 나진항 개발은 창지투 개발의 해상출구로서 핵심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다. 중국의 창리그룹은 2008년 북한으로부터 나진항 1호부두 사용권을 확보했으며 2009년 부두 정박지를 보수 확장하여 연간 100만 톤의 하역능력을 갖추게 되었다.(연합, 2011.1.16) 중국은 나진항을 통해 처음으로 훈춘의 석탄 2만 톤을 상하이로 운송(2011.1.15)했으며 향후 나진항을 이용하여 지하자원과 곡물의 남방운송을 본격화할 예정이다.

경제특구

중국의 상지관군투자유한공사(商地冠群投資有限公司)는 2010년 12월 북한 조선투자개발연합체와 10개 항의 투자의향서를 체결했다.⁶⁾ 상지공사는 2~3년간 나선 경제특구 건설에 필요한 인프라를 건설하고 5~10년에 걸쳐 동북아 최대 핵심 공업특구를 건설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상지공사는 모두 20억 달러를 투자해 화력발전소, 도로, 유조선 전용부두, 석유정제공장, 제철소를 건설할 계획이다. 또한 함북 무산자철광산 등 북한의 지하 광물자원을 개발하고 국제금융은행도 설립하기로 합의했다.(중앙일보, 2011.1.7)

한편 북한은 중국과 황금평을 특구로 개발하기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으며 특구개발을 위한 특별법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연합, 2011.1.17) 지난 해 초부터 황금평과 위화도를 자유무역지구로 개발하려 한다는 소문이 있었다.⁷⁾ 단동시는 이들 2개 섬을 보세구역과 식품품류 가공기지, 면세가공품기지, 물류기지, 위탁시설 등이 들어서는 자유무역지구로 개발한다는 것이다. 단동시는 황금평과 위화도

6) 중국 측 위원은 상무부 부부장이 맡고 실제 개발에는 국유에너지 기업인 상지관군투자유한공사(商地冠群投資有限公司)가 참가한다.
7) 중국이 위화도와 황금평을 100년간 북한으로부터 임대 형식으로 넘겨받아 자유무역지구로 개발하기 위한 협상을 진행(아사히 신문 2010.12.16)

지역에서 각각 11km²(330만 평), 12km²(360만 평) 규모의 토지사용권을 50년간 북한으로부터 이미 취득했고 이를 100년간 연장하기 위해 북한과 협상중이라고 한다.⁸⁾

그동안 중국의 대북투자는 북한의 열악한 투자환경 때문에 실현 가능성에 많은 의문이 제기되고 논란이 야기되어 왔다. 그러나 소문이 합의서로, 더 나아가 착공으로 현실화되고 있다. 이러한 현실화는 북중간 이해가 일치하고 특히 중국의 이해가 북한 자체보다 해양으로 또는 남한으로 진출하는 통로 또는 전초기지 확보에 있기 때문이다.

기타

① 북한의 저임 노동력 고용 확대

중국의 임금상승으로 대북 임가공무역이 증가하고 있다. 북한의 평균 임가공료는 일당 1달러(월 30달러)로 중국 비숙련 노동자 평균임금의 13%에 불과하지만 북한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만족할 만한 수준이다. 또한 중국 기업은 북한으로부터 최종재를 건네받은 후 현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임가공사업을 안정적인 외화벌이 사업으로 선호하고 있다.

이와 함께 최근 중국이 추진하고 있는 도문 및 훈춘의 경제개발구역에 북한 노동력 파견을 모색중이다. 중국은 노동법 개정 이후 임금이 인상된 데다 근로자들의 3D업종 기피현상으로 북한 숙련노동자에 대한 관심이 높다. 현재 임금수준에 관한 북·중간 견해차로 협상이 지연되고 있으나 임금협상이 타결되면 북한의 숙련노동자들이 접경지역 경제개발구로 파견될 가능성이 크다. 필자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북한은 숙련공의 월 임금으로 1,500위안 수준을 요구하고 중국은 500위안을 제시하고 있다.⁹⁾

8) 개성공단인 경우 총 2,000만평 개발(공단 800만평, 배후 도시 1,200만평)합의하고 3단계 공단 개발 가운데 현재 1단계 100만평(2단계 150만평, 3단계 350만평) 개발에 그쳤다.

9) 남한 원화기준 27~28만원으로 중국 비숙련공 노동자의 평균임금 수준이며, 개성공단 근로자의 약 3배에 해당된다.

② 대북관광 확대

필자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2010년부터 대북관광 인원제한이 풀림에 따라 중국의 대북관광이 크게 확대되었다. 단동국제여행사가 모집한 북한 관광객 수는 11월 현재까지 3만 명 수준으로 지난 해 1만 4천여 명 관광객에 비해 2배 증가했다.¹⁰⁾ 일반상품으로 평양관광을 주로 취급하고 개성, 묘향산, 남포, 그리고 접경지인 신의주 관광 상품도 취급하고 있다. 한편 연변국제여행사 등 연변지역 여행사들이 나진과 백두산 남쪽의 1박 2일, 2박 3일 코스 외에 회령, 청진, 칠보산, 금강산 등에 대한 단체관광 상품을 개설했다.

이상 최근의 북중경협은 다변화되고 확대되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즉 과거 무역과 북한 광물자원 개발을 중심으로 한 투자에서 최근에는 동북3성 개발과 연계된 북한 인프라 및 경제특구 건설 등에 대한 투자로 다변화되고 확대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경제적 요인과 함께 정치적 요인에 기인한다. 첫째, 경제적 요인으로는 중국 경제의 급격한 성장으로 ① 북한의 광물자원 및 수산물 등에 대한 수입 증대, ② 북중간 임금격차가 크게 확대되면서 북한 저임금을 겨냥한 투자 증대, ③ 동북3성 개발 추진의 일환으로 해외진출장려(走出去)를 위한 대북 통로 건설(인프라 구축) 추진 등이 그것이다.

둘째, 이와 함께 중국과 치순관계인 북한의 붕괴 억제, 동북아의 안정 도모 등의 정치군사적 요인이 크게 작용하고 있다. 양국간 정치군사적 유대 강화는 중국이 북한의 2차 핵실험에도 불구하고 한반도의 안정을 중요시(국제위기감시기구(ICG), 2009.11)한 데서 비롯되며, 2009년 10월 원자바오 총리의 방북, 2010년 5월 및 8월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두 차례 방중 등에서 입증된다. 구체적 사례로 2010년 12월 중국은 나진항 개발과 관련 20억 달러 투자에 합의하면서 “이번 합작은 중조 두나라 고위급의 신중한 역사의식을 갖춘 전략적 합작”이라 표현하고 있다. 이러한 나진항 개발은 경제적 목적 외에 對미 견제용 군사기지 사용 등을 고

10) 중국의 대북관광은 북경, 심양, 단둥, 연길 등 4곳에서 이루어지는데, 단동국제여행사는 올해 대북관광의 60%를 점유했다.

려했을 가능성이 크다.¹¹⁾

북중경제협력 확대의 영향

북중경협 확대는, 기존의 연구들이 밝히고 있는 것처럼, 북한에 체제유지에 기여하는 동시에 개혁개방을 촉진한다는 긍정적 측면과 함께 대중국 의존도 심화라는 부정적 측면을 동시에 보여주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북중경협 확대의 영향을 대중국 의존도 심화라는 측면에서 더 나아가 대중국 종속 가능성의 문제를 중심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대중국 의존도 심화

기존 연구들은 대중국 무역과 시장거래에서 중국산품의 비중 등으로 북한의 대중국 의존도 심화를 제시해 왔다.¹²⁾ 본 연구에서는 상품 생산 및 소비, 화폐유통, 주민의식 등의 측면에서 대중국 의존도 심화 현상을 살펴보고자 한다.

기업 및 소비자의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의존도가 심화됨에 따라 북한 정부의 계획생산 기능이 크게 약화되었다. 중국으로부터 수입된 원자재 및 자본재가 북한 정부가 계획생산을 위해 기업에 직접 공급하는 ‘인민경제비’*지출을 상회하고 있

〈 북한의 대중국 용도별 수입비중 〉

(단위 : 억 달러, %)

	2000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생산재(억달러, A)	3.8	4.4	5.5	8.1	9.7	11.2	15.4
인민경제비(억달러, B)		9.3	10.4	11.4	12.2	13.2	14.5
A/B(%)	-	47.1	53.0	85.2	87.8	90.7	111.6

주 : 생산재는 자본재와 원자재를 포함하며 여기서는 HS code 2자리를 기준으로 계산
인민경제비는 2000년대 북한 재정통계에 근거하여 계산

11) 훈춘-나진항-상하이로의 루트 개발로 동해는 중국의 내해가 되고 한반도는 중국의 군사적 영향권에 포섭될 가능성을 시사한다.
12) 대중국 의존도를 가장 쉽게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은 국민소득 대비 중국무역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방법을 취하는 이유는 한국은행이 추정한 북한의 국민소득은 남한의 가격과 환율이 적용된 것으로 경제의존도 분석에 적용하기는 곤란하기 때문이다.

다. 인민경제비는 북한정부가 계획생산을 위해 기업에 제공하는 건설자재, 원자재, 중간재 조달을 위한 자금으로서 북한 예산의 약 40%를 차지한다.

수입된 중국산 소비재는 2000년 9억 달러에서 2008년 49억 달러로 약 6배 증가하면서 북한의 소비재 시장을 석권하고 있다. 저가의 중국산 소비재 범람으로 북한의 소비재 생산이 위축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 대중국 소비재 수입 규모 추이 〉

(단위 : 백만 달러)

연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규모	87.7	135.4	100.5	188.1	245.9	272.7	258.6	275.9	491.3

* HS code 2자리 기준으로 소비재를 추출하여 계산

한편 북중무역 증가와 함께 중국정부의 위안화 결제 허용, 화폐개혁*(2009.11)으로 북한원화에 대한 신뢰 추락 등으로 인해 무역과 시장거래에서 위안화 결제가 크게 증가했다. 우선, 중국정부는 2008년 2월 북한기업이 위안화로 무역대금을 결제할 수 있는 위안화 계좌개설을 허용하면서¹³⁾ 무역결제에서 위안화 사용이 증가해 왔다. 더욱이 화폐개혁 이후 양국 주민간 변경무역은 물론 평양 등 남부지역에서도 위안화로 결제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북한의 대중국의존도 심화는 북한 주민의 중국 선호 현상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다. 2009년 1월~8월 접경지역 북한주민 1,000여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북한 붕괴시 중국과 통합(40.1%), 자력갱생(31.5%), 남한과 통일(27.1%) 등의 순으로 조사되었다.(이병화, 2009)

대중국 종속 가능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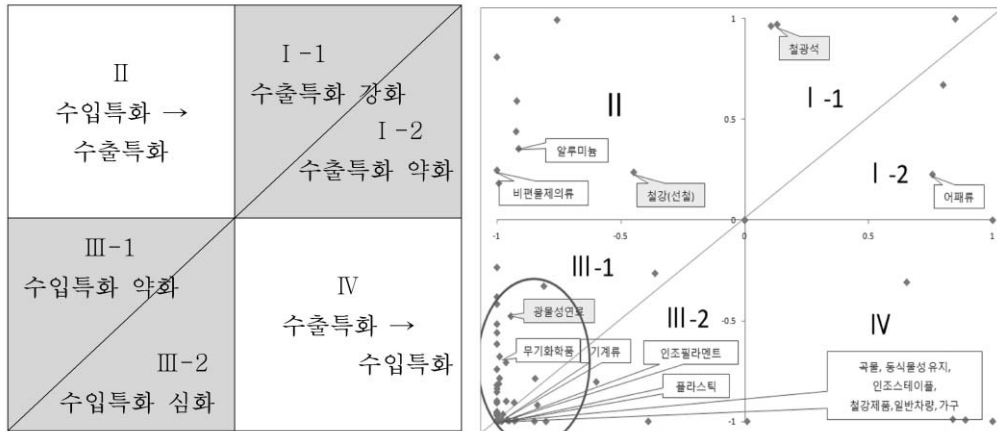
개방경제 하에서 의존도가 높아지는 것은 특이현상이 아니다. 문제는 무역경쟁력이 개선되지 않음으로써 수입대체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즉 선·후진국간 비교

13) 동 조치는 양국의 무역 촉진, 무역결제 편의성 제고 등 금융경제적 필요 외에 북핵실험 후 대북송금과 계좌개설에 대한 제재를 회피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한국은행 현지업무정보, 2008.4.17)

우위가 그대로 고착될 때, 종속 가능성이 커지는 것이다. 따라서 종속 가능성을 파악하기 위해 무역경쟁력을 분석해볼 필요가 있다.

2000~2008년중 무역특화지수(Trade Specialization Index) 변화를 분석한 결과, 북한산업 전 부문에서 수입대체가 거의 발생하지 않고 있음이 나타난다. 2000~2008년중 기계류, 정밀기기 등 자본재의 무역특화지수(TSI : Trade Specification Index)¹⁴⁾가 -1(완전수입특화)에서 변화가 없었으며, 식료품, 전기제품 등 생필품의 동 지수도 -0.8~-0.9 수준으로 수입대체가 거의 일어나지 않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반면 무역경쟁력이 개선되고 있는 부문은 단지철광석, 선철 등 광물자원과 의류 등 임가공무역 품목에 제한되고 있다.

〈 북중무역의 북한 무역특화지수 변화(2000~2008) 〉



주 : TSI_{기준년(2000)}를 x축으로 하고, TSI_{비교년(2008)}을 y축으로 하여 사분면을 이용하여 분석

14) 무역특화지수는 특정 품목의 순수출액(=수출액-수입액)을 수출입액의 합으로 나누어 계산하는 것으로 비교우위 분석지표로 활용된다: $TSI_i = (X_i - M_i) / (X_i + M_i)$. 무역특화지수는 -1과 1사이의 값을 가지며, 1에 가까울수록 수출특화가 높고 -1에 가까울수록 수입특화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 논 단 |

구분	무역특화지수		HS	품목	2000	2004	2008	2008 가중치 (%)*
경쟁력 강화	수출특화품목으로 경쟁력 강화	I-1	26	철광석	0.11	1.00	0.96	7.8
			62	비편물제의류	-1.00	0.89	0.25	4.4
	수입특화에서 수출특화로 전환	II	72	철강	-0.45	0.31	0.24	4.6
			76	알루미늄	-0.91	-0.56	0.35	1.0
			16	육,어류제품	-0.96	-0.92	-0.90	1.7
	수입특화품목으로서 수입특화 정도가 약화	III-1	27	광물성연료	-0.94	-0.59	-0.48	28.5
			28	무기화합물	-0.96	-0.92	-0.71	1.5
			61	편물제의류	-0.99	-0.15	-0.79	3.5
85			전기제품	-0.99	-0.90	-0.81	4.0	
경쟁력 약화	수출특화품목으로 경쟁력 약화	I-2	3	어패류	0.76	0.96	0.23	2.3
			39	플라스틱	-0.84	-0.95	-0.92	3.0
	수입특화가 심화	III-2	54	인조필라멘트	-0.96	-0.99	-0.99	2.0
			84	기계류	-0.98	-0.96	-0.99	5.2
포배 정예	완전수입특화		10	곡물	-1.00	-1.00	-1.00	1.3
			15	동식물성유지	-1.00	-0.94	-1.00	1.6
			55	인조스테이플	-0.95	-1.00	-1.00	1.5
			73	철강제품	-1.00	-0.98	-1.00	1.4
			87	일반차량	-1.00	-1.00	-1.00	2.4
			94	가구	-0.96	-1.00	-1.00	1.1

* 2008년 무역비중이 1%를 넘는 품목을 대상으로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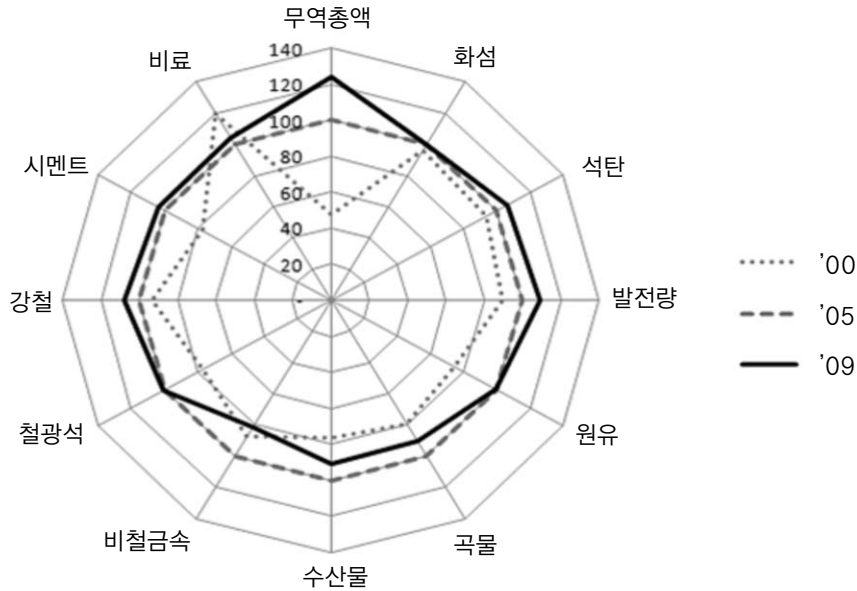
종속 가능성 심화의 원인

이처럼 선·후진국간 무역구조가 고착되고 있는 원인, 즉 무역경쟁력이 개선되지 않는 원인을 생산 및 교역 환경에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북한의 개혁 지체, 생산설비 노후화, 도로·항만 등 인프라의 부실 등에 따른 생산 정체를 지적할 수 있다. 그로 인해 산업생산은 소폭 증가에 그쳤으며, 심지어 2005년 이후에는 수산물, 비철금속 등 일부 산업의 생산이 감소되었다.

둘째, 교역조건¹⁵⁾의 변화는 북한이 어려운 개혁을 택하기보다 손쉽게 1차산품을 수출하는 길을 택하는 데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대중국 수출단가

〈 북한의 산업생산 지수 증가추이(2005년 = 100) 〉



는 전반적으로 상승한 반면 수입단가는 하락함으로써 북한 무역에 유리하게 작용했다. 일례로 2008년의 경우 2005년에 비해 수출물량은 비슷함에도 단가상승으로 외화소득은 1.5배 증가했다. 이러한 교역조건의 변화가 북한의 생산정체에도 불구하고 무역이 늘어날 수 있었던 하나의 주된 요인이라고 판단된다.

15) 여기서는 HS 6자리를 기준으로 차관으로 제공되는 원유 및 일부 이상치(outlier)를 제외하여 계산(2009년 품목별 통계는 발표되지 않아 2008년까지 계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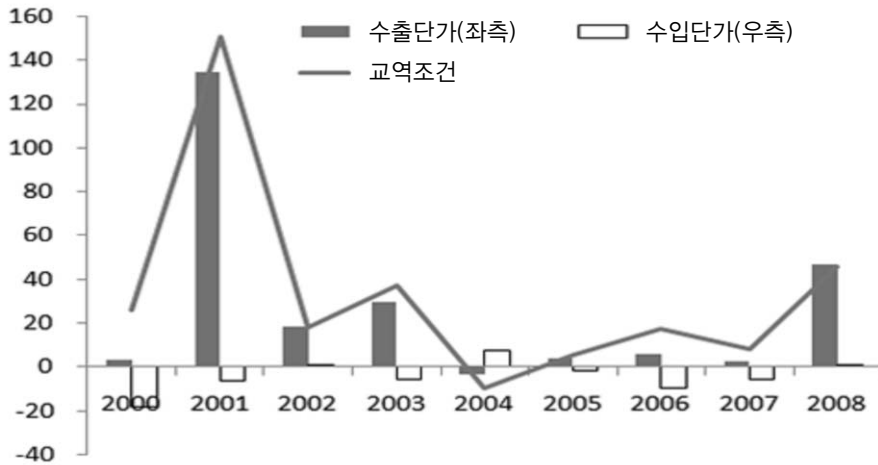
$$\text{순상품교역조건지수} = \frac{\text{수출단가지수}}{\text{수입단가지수}}$$

$$t\text{년도의 연간단가지수} = t-1\text{년도 연간단가지수}(=100) \times \frac{\sum P_t Q_t}{\sum P_{t-1} Q_t}$$

$$\begin{aligned} \text{소득교역조건지수} &= \frac{\text{수출금액지수}}{\text{수입단가지수}} \\ &= \frac{\text{수출단가지수} \times \text{수출물량지수} \div 100}{\text{수입단가지수}} \times 100 \\ &= \text{순상품교역조건지수} \times \text{수출물량지수} \div 100 \end{aligned}$$

〈 북한의 대중국무역에서의 (순상품)교역조건 추이 〉

(전년동기대비 증가율)



〈 북중무역지수 추이 〉

(2005년 = 100)

	수출			수입		
	금액지수	단가지수	물량지수	금액지수	단가지수	물량지수
2000(A)	7.5	27.5	27.3	40.1	106.7	37.6
2001	33.6	64.5	52.1	51.6	99.8	51.7
2002	54.6	76.5	71.3	44.1	100.3	43.9
2003	79.7	99.3	80.3	57.0	94.9	60.0
2004	117.3	96.1	122.0	73.8	101.8	72.5
2005(B)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2006	94.2	105.7	89.2	110.3	90.2	122.3
2007	117.1	108.1	108.3	126.1	85.0	148.4
2008(C)	151.9	159.0	95.5	183.9	85.9	214.1
C/A	20.3	5.8	3.5	4.6	0.8	5.7
C/B	1.5	1.6	1.0	1.8	0.9	2.1

특히 주 수출품인 광물자원의 경우 세계적인 원자재난으로 인해 2000~2008년 중 대중국 수출 단가는 5~9배 폭등했다.

〈 북한의 대중 수출 물량 및 단가 추이(2000~2008) 〉

(단위 : 천 톤, ()는 USD/kg)

	2000(A)	2002	2004	2006	2008(B)	B/A
철광석	53(0.01)	172(0.02)	876(0.05)	1,521(0.05)	1,904(0.09)	36(9.0)
무연탄	9(0.01)	369(0.02)	1,636(0.03)	2,413(0.04)	2,516(0.08)	280(8.0)
선 철	5(0.09)	105(0.11)	155(0.20)	889(0.21)	728(0.48)	16(5.3)

출처: 한국무역협회

* 2008년 HS code 2자리 품목 가운데 6자리 기준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품목

시사점

최근 북중경협이 확대와 다변화는 대중국 종속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그간 북중경협이 확대되었지만 북한은 무역 경쟁력을 개선하지 못함으로써 기초 생필품조차 수입대체를 하지 못하고 있다. 향후 북한정부의 적극적 개혁 노력 없이는 북중경협이 확대는 대중국 종속 심화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

한편 최근 북중경협이 추세는 북중경협이 남북경협을 대체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우선, 2010년 대중국 수출은 전년대비 50%(약 4억 달러) 증가함으로써 남북교역 중단으로 인한 외화소득 감소분을 만회하고 있다. 일반교역뿐 아니라 임가공 무역도 대체되고 개성공단의 입지도 동북3성개발과 연계된 인프라 및 경제특구 건설로 약화될 가능성이 있다.

이상 최근의 북중경협 확대 및 영향을 고려할 때, 남북관계에 초점을 둔 우리의 대북정책과 비상계획은 중국변수를 추가하여 개선될 필요가 있다. 지금의 추세가 지속된다면 남북경협 감소와 북중경협 확대로 남한의 영향력이 감소하고 중국의 영향력이 확대되는 것은 불가피하다. 더욱이 중국은 단동을 한반도 개방사업의 전초기지로서 개발하는 등 장기적으로는 북한을 통한 남한으로의 진출을 염두에 두고 있다. 또한 북한주민들도 북한의 붕괴시 한국보다 중국에 동조할 것이라는 조사보고도 제시되고 있다. 